



성경에는 성모몽소승천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교회는 이 신비의 근거가 성경에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부활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곧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의 희망이며 증거라고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1코린 15,14-57 참조).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약속합니다. 그분의 뜻에 따라 온 삶을 바친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합니다. 나아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 헌신하는 이에게 천국의 보상을 약속합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헌신한 사람에게 주실 백배의 상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희망합니다. 때문에 말씀대로 완덕을 살아낸 성모님께 맞갖은 보상이 따른 것에 기뻐합니다. 그분이 천국으로 올림을 받는 것은 진리이신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진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성모님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성모님처럼 죄없이 살아낸 사람이 다시 있을까요? 예수님의 온 것을 그토록 온전히 품어 결합했던 영혼이 어디에 있을까요?

죽음은 죄의 결과인만큼 죄가 없는 성모님을 곧바로 부활시켜 천국에 오르게 하신 것은 지당한 결과입니다. 이야말로 세상에 선포하신 하느님 약속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뚜렷한 증거입니다. 성모님께 부어주신 은총의 가득함이 성모몽소승천으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감사의 송가

(시편 65,2-6)

시작 성가

- 진행자** • 가톨릭 성가 438번 “주께 감사드리자”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 진행자**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일상 안에서 당신을 찬양할 수 있게 하소서.
- 사랑이신 주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소서.

하느님 말씀

- 진행자** • 한 분이 시편 제65편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65, 2 하느님, 시온에서
당신을 찬양함이 마땅합니다.
당신께 서원이 채워집니다,
3 기도를 들어 주시는 분 당신께,
당신께로 모든 사람이 모여 오니

- 4 죄악 때문입니다.
저희의 죄가 저희에게는 너무나 무겁지만
당신께서는 그것을 용서하여 주십니다.
5 행복합니다,
당신께서 뽑아 가까이 오도록 하신 이!
그는 당신의 뜰 안에 머물리이다.
저희도 당신 집의 좋은 것을,
거룩한 당신 궁전의 좋은 것을 누리리이다.
6 저희 구원의 하느님
당신께서는 정의의 놀라운 행적으로
저희에게 응답하십니다.
당신은 세상 모든 끝과
머나먼 바다의 희망이십니다.

- 진행자**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 진행자**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 진행자**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 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특히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없을 때는 아래의 질문을 참고할 수 있다.)
- 누군가로부터 용서 받은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 자신의 잘못을 하느님께서 용서해주셨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길

우리는 날마다 걸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가끔은 걸음을 멈추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고 있는지 주위를 돌아봅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다고,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어둡고, 외롭고, 어려운 길도
그렇게 참고 잘 왔다고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불평과 불만에 찬 걸음은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감사와 기쁨이 없습니다.
하느님의 선물인 희망도 없습니다.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고 싶은 순간에 하느님께 감사해 보십시오.
그분께서 큰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하느님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날 것입니다.

잘못된 불평과 불만의 감정을 따라가다 보면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하지만 감사를 따라가다 보면 평온한 인생이 됩니다.

바쁜 것 조금 내려놓고, 내 옆의 사랑하는 사람 손도 잡고 산책도 하고 밥도 먹어 보고 같이 놀아도 보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축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느님께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갑시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기타 토의

진행자 •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이제 이번 달의 우리 소공동체가 실천한 사항들을 함께 논의해 봅시다.
(실천사항 논의 후) 공지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침 기도

진행자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 성가

진행자 • 가톨릭 성가 438번 “주께 감사드리자” 2,3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정이 있고 살맛 나는 가족 공동체 |

- 양곡본당 구역분과장 이현주(글라라) -

벚꽃 축제가 열리는 진해 초입에 위치한 양곡본당은 주변 경관의 아름다움과 아담하고 예쁘게 자리 잡은 모습에 감탄하게 되는 자그마한 성당입니다. 1989년 1월 창원시 소유의 유치원 부지를 매입하면서 본당이 설립되고 배진구 신부님께서 초대 주임으로 부임하셨습니다. 그 해 12월 유치원과 수녀원은 완공되었지만 아직 성전이 지어 지지 않아 천막과 인근 아파트에서 미사를 드려오다, 신자들이 자발적으로 열성을 다해 성전건립기금을 마련하여 1984년 12월 23일 성전봉헌식을 하였고, 지난 2006년 5월 5일에는 본당설립 25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양곡본당 소공동체는 1구역, 2구역, 3구역, 천사구역으로 나누어 활동하고 있으며, 매주 첫째 주 수요일에 반구역장 모임을 실시합니다. 화합을 중시하는 신부님의 사목방침에 따라 회의 후에는 점심을 함께 합니다. 반장들이 각자 한 가지씩 집에서 가져온 반찬과 후식을 나누는 동안 하하 호호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1구역 식구들은 단합이 잘되고 흥이 많아 모든 축제의 감초 역할을 합니다. 특히 지난 성탄 때 쫄쫄이 타이즈를 입고

백조의 호수 춤을 춘 반원들 덕분에 모두가 배꼽을 잡고 크게 웃었습니다. 2구역 식구들은 음식 솜씨가 좋아 성당 행사 때마다 품위 있고 맛깔난 음식들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3구역 식구들은 본당의 굿은일에 솔선수범합니다. 성당 곳곳의 잡초제거는 물론 빈 터에 고추, 가지 등을 심고 가꾸어 우리 마음을 풍요롭게 해 줍니다.

김상진(레미지오)신부님께서 부임하신 후로 해마다 시월이면 본당예술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재능을 기부하신 두 분 선생님 덕분에 문인화와 색소폰 동아리가 결성되어 예술제를 더 풍성하게 합니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예술제는 성경전시와 성가대의 합창, 문인화반에서 전시한 그림들로 성황리에 개최되고, 색소폰 동아리의 연주는 축제를 한층 빛나게 합니다. 해가 갈수록 영적, 문화적 수준이 높아지는 양곡 신자들이 부럽지 않으신가요?

